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나타나는 항핵항체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송정수*, 배성권, 박 원

항핵항체는 세포의 다양한 구성 성분에 대한 항체들로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 경화증, 혼합성 결합조직질환, 쇼그렌 증후군 등의 류마티스질환에서 많이 나타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42-70% 정도에서도 나타난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나타나는 항핵항체는 대부분 speckled 또는 homogenous 양상을 보이며, 그 역가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나 전신성 경화증보다는 낮으며, 이 환 기간이 길거나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 양성율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저자 등은 1996년 5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인하대병원을 방문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 중에 1987년에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류마티스관절염 분류기준에 합당한 환자들 중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핵항체 양성인 환자들과 항핵항체 음성인 환자들을 분류하고 각 환자군에서의 여러 임상 지표들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총 292명이었으며, 그 중 항핵항체가 양성인 환자 (Group A)는 147명 (50.3%), 항핵항체가 음성인 환자 (Group B)는 145명 (49.7%)였다.
2. Group A 환자들에서 항핵항체의 양상은 speckled 44.8 %, homogenous 41.6 %, nucleolar 4.0 %, discrete speckled 3.2 %, mixed 2.4 % 그리고 미분류형이 4 %로 나타났다.
3. 두 Group 사이의 임상 지표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나이 (세)	성별 (남/여)	빈혈의 빈도	RF (IU/ml)	ESR (mm/hour)	CRP 양성율	혈소판 증가증	골 스캔상 열소 부위	흉부 X-선 이상 소견
Group A	48.66 ± 14.4	16/131	60.0%	188.5	41.7	51.7%	13.9%	7.19 ± 4.1	18.3%
Group B	48.95 ± 48.9	32/113	47.7%	177.2	36.8	55.8%	13.6%	4.82 ± 3.3	16.8%
P-value	NS	0.01	0.05	NS	NS	NS	NS	0.01	NS

NS: not significant, RF: Rheumatoid factor

이상의 결과에서 항핵항체와 류마티스 인자가 모두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여성에서 흔하고 빈혈 및 골 스캔상 열소 부위 등의 임상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의학 통계학과**

노현정*, 박무석, 윤영연, 박중원, 홍천수, 서지연**, 김동기**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천식 치료의 효율성은 증상의 변화와 호기시 유속, 기도 과민성 등을 측정하여 평가해왔으나 최근에는 천식환자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연자 등은 1992년 Juniper가 제시한 천식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우리 나라 천식환자들이 어떤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천식병력이 1년 이상인 성인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상 생활 40가지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32가지 문항 (활동제한 11문항, 증상 12문항, 감정 능력 5문항, 환경자극에의 노출 4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

1.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48.1 ± 13.1세였고 여자가 103명(53.4%)였다.
2. 아토피성 87명(48.3%), 비 아토피성 59명(32.8%), 직업성 7명(3.9%)였으며 아스피린성은 27명(15%)로 따로 분류하였다.
3. 중증도별 분류 시 경증 간헐성 59명(31.2%), 경증 지속성 67명(35.4%), 중등증 지속성 40명(21.2%), 중증 지속성 23명(12.2%)였으며 조절 상태에 따라서는 조절군 148명(78.3%), 중간군 24명(12.7%), 비조절군 17명(9%) 였다.
4. 우리 나라 천식환자가 가장 중요한 일상 생활로 생각하는 것은 계단 오르기, 집안 청소, 동산, 달리기, 지하철/버스 타기 순이었으며, 천식으로 인해 가장 제한 받는 활동은 테니스, 축구, 달리기, 계단오르기 순 이었다.
5. 천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선 중증도, 조절상태 및 최근 3개월간의 천식 발작상태 등이 있었고 연령, 아토피성 유무, 아토피 점수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직업성 천식환자의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흡입성 기관지 확장제만을 사용하는 군은 흡입성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는 군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7. 천식환자들이 치료 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장기치료, 비만 약값, 일상생활제한, 월 1-2회 병원에 가는 것, 검사에 따른 높은 추가경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 천식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 생활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치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